

## 체육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

### 초등부 남자 선단한국체육관 1위

포천시체육회와 포천시태권도협회(회장 조복현)가 주관한 제3회 포천시 체육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25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치러졌다.

포천 태권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로 나눠 진행됐으며 ▷겨루기 ▷초등부 17개교 212명 ▷중등부 9개교 57명 ▷고등부 4개교 25명 ▷품새 ▷초등부 17개교 345명 ▷중등부 7개교 27명 등 총 666명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의 결과는 ▷초등부(男) 선단한국체육관(1위), 송우한국체육관(2위), 고려체육관(3위) ▷초등부(女) 선단한국체육관(1위), 흥익체육관(2

위), 영중체육관(3위) ▷중등부(男) 갈월중(1위), 일동중(2위), 포천중(3위) ▷중등부(女) 갈월중(1위), 정무체육관(2위), 영북중(3위) ▷고등부 동남고(1위), 일동중고(2위), 관인고(3위).

최우수 선수상 및 최우수 지도자상은 ▷남초부 선단초 김성열, 선단초 박인섭 코치 ▷여초부 선단초 배선이, 흥익체육관 김태선 관장 ▷남중등부 갈월중 추경호, 갈월중 진종철 코치 ▷여중등부 갈월중 정 별, 정무체육관 김정운 코치 ▷남고부 동남고 송준섭, 동남고 김종천 코치.(최우수선수, 최우수지도자 順)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3회 포천시체육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25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치러진 가운데 참가 선수들이 대회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 도지사기 족구대회 청년부優勝



포천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연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회 경기도지사기 족구대회에 우승한 포천시 선수와 임원진이 함께 모여 대회우승을 축하했다.

### 족구 발전에 초석 다져

포천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연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대회 마지막 날 2부 청년부에서 이천시를 2-1로 역전해 우승컵을 차지했다.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족구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족구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군 대항전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치러진 이번 대회는 30개 시·군 719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포천시는 족구연합회 양재설 회장을 감독으로 3명의 임

원과 청년부 7명, 준장년부 7명 등 총 19명이 출전해 청년부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양재설 감독은 "이번 청년부 우승을 통해 포천시 족구가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족구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2부 종합우승은 청년부와 준장년부를 석권한 이천시가 차지했으며, 2부 각 부별 1위는 ▷청년부 포천시 ▷준장년부 안성시 ▷장년부 여주군이 올랐다. 또한 시범종목으로 치러진 여성부 경기는 광주시가 화성시를 2대1로 물리쳤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지역사회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 화현면 태극축구회 발대식

화현면 태극축구회(회장 오명선)가 발대식을 갖고 지역화합과 단결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화현면 태극축구회는 지난 26일 화현면 주민자치센터 운동장에서 회원 36명과 유관기관 단체장 및 축구연합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 및 참가 단체별 7인제 축구 경기로 치러진 이번 발대식은 발탁축

원 고사, 시축 등의 기념식과 기념식 전후로 치러진 7인제 축구경기로 진행됐다.

오명선 회장은 "태극축구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해 출범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협동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태극축구회는 지난해 8월 15일 결성, 제1대 박덕용 회장이 이끌어나오 이날 정식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학생부優勝

### 사회인 남자부 단체전 3위

포천시는 지난 26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검도대회 2부에 출전, 학생부 우승과 사회인남자부 단체전 3위에 올랐다.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생활체육 경기도검도검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검도 동호인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30개 시·군 531명의 검도동호인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 2부로

구분한 시·군대항전으로 치러졌다.

학생부와 사회인남자부가 출전한 포천시는 이종무 감독을 비롯한 선수와 임원 18명이 참가했다.

한편 학생부선수단은 안성시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부 선수들은 ▷신창식(소흘읍) ▷함성균(신음동) ▷김종훈(신북면) ▷조현(가산면) ▷이창훈(소흘읍) ▷안준용(소흘읍) ▷권오성(소흘읍).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인터뷰 16 포천시족구연합회 양재설 회장

## 권역별 족구대회 개최 전용구장 건립 통한 활성화 도모



양재설 회장  
 포천시족구연합회

지난해 7월 7일 정식 출범한 포천시족구연합회는 최근 급속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족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육회 가맹 당시인 지난해 7월 회장에 취임, 현재 포천시 족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양재설(사진·41) 회장으로부터 족구연합의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양재설 회장은 포천출신으로 현재 포천시 군내면에서 대양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기업인 중의 하나다.

포천에 족구연합회가 출범한 지는 8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난해 국민생활체육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 등록하면서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체계 있는 동호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족구의 실력 향상으로 인한 전력 상승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대회 개최시 군인과 일반부의 구분을 두고 운영, 군인팀과의 괴리감 해소와 일반부의 자신감 회복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족구연합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족구전용구장 마련이다.

양 회장은 “예전에는 전용 구장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학교의 한구석이나 공터에 임시로 사용하는 수준 정도의 구장밖에 없다”며 전용구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회장은 “포천종합운동장 그늘가에 공터가 있어 2면정도의 전용족구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며 “최근 포천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는 것 같아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더 이상 족구를 2인자로서 비인간의 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의지가 확연하다.

“현재 족구는 비정규 종목으로 족구 동호인 대부분이 족구동호회에 가입된 상태에서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정식종목화를 통해 전문 족구인을 양성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회장은 동호인 양성과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에서는 족구선수를 선발하는 등 직업 진로로서 선택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수 육성 역시 지금의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용구장과 전문 코치의 양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며 추후 전용구장 건립과 발맞춰 족구연합회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에서는 족구선수를 선발하는 등 직업 진로로서 선택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수 육성 역시 지금의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용구장과 전문 코치의 양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며 추후 전용구장 건립과 발맞춰 족구연합회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해 포천에서 개최된 경기도지사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족구선수단.

#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 이 함께 합니다

##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영동 1호 세트  
 100g × 36인분 3.6kg



☆영동 2호 세트  
 100g × 24인분 2.4kg



### < 생산품목 >

- 영동국수 · 소면 ● 영동메밀 · 갈국수
- 곰표국수 · 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 · 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 · 칩 · 죽국수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 ·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